

보도자료	보도일시	2018. 11. 20.(화) 12:00	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
	배포일시	2018. 11. 20.(화) 09:00	
	담당부서	동북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	
	담당자	과 장: 정 동 욱 (053-609-6651) 사 무 관: 김 미 영 (053-609-6659) 주 무 관: 최 희 아 (053-609-6669)	

동북지역(대구·경북·강원)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

-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일반가구 대상(20% 표본조사 결과) -

일 러 두 기

- 동북지방통계청(청장 정동명)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지방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역 맞춤형 통계 분석 자료인 「대구·경북·강원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」 결과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.
- 이 보도자료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% 표본조사 결과 중 일반가구*만을 대상으로 대구·경북·강원의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을 종합·분석한 것입니다. 그 결과는 대구·경북·강원 각 시도 및 시군구에 해당 보고서로 제공될 예정이며,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.

* 특별조사구, 집단가구, 외국인 가구 등은 제외

□ 관련용어

- 일반가구: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,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, 1인 가구,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
 - 가족 생애주기: 결혼기간을 기준으로 4단계(형성기, 확장기, 수축기, 소멸기)로 구분하여 분석
 - 개인 생애주기: 주요 생애주기 사건*을 기준으로 8단계(영·유아기, 아동기, 청소년기, 청년기, 장년기, 중년기, 노년기, 초고령기)로 구분하여 분석
- * 출생, 교육, 취업, 결혼, 은퇴, 사망 등

□ 유의사항

- 본 분석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% 표본조사 결과 중 특별조사구, 집단가구(6인 이상 비친족·사회시설), 외국인가구 등을 제외한 일반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기 공표된 자료와 일부 수치가 다를 수 있음
- 분석내용 중 가족의 생애주기별 특성 분석에서는 15세 이상의 가구주 혼인상태가 미혼인 경우를 제외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음
- 일부 통계표 수치는 반올림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

목 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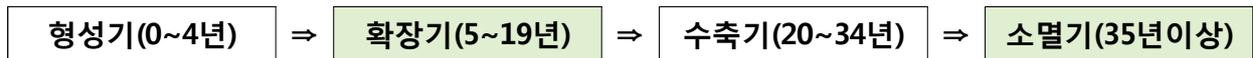
□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(요약)	1
I. 가족 생애주기별 특성 분석	3
1. 가구원수 규모	5
2. 1인 가구	6
3. 주택 유형	7
II. 개인 생애주기별 특성 분석	8
1. 인구분포	10
2. 출생지 거주비율	11
3. 학령인구	12
4. 교육수준	13
5. 종사상지위	14
6. 직업분포	15
7. 출생아수	16

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(요약)

-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일반가구 대상(20% 표본조사 결과)-

I. 가족생애주기

1. 결혼기간에 따른 주기구분



2. 주요 특징

- 확장기에는 결혼·출산 등의 사유로 평균가구원수*가 정점(3.5명)을 이루고, 소멸기에는 자녀독립 등으로 그 수*는 최저(1.9~2.1명)으로 나타남

* 대구: 형성기(2.7명) 확장기(3.5명) 수축기(2.9명) 소멸기(2.1명)
경북: 형성기(2.7명) 확장기(3.5명) 수축기(2.7명) 소멸기(1.9명)
강원: 형성기(2.7명) 확장기(3.5명) 수축기(2.6명) 소멸기(1.9명)

- 1인 가구 비중은 강원(24.1%), 경북(23.6%), 대구(17.8%) 순으로, 가족 생애 주기 내 1인 가구의 가구원수 규모별 비중*은 소멸기에서 가장 높음

* 대구(평균 17.8%): 형성기(5.2%) 확장기(6.0%) 수축기(13.0%) 소멸기(33.2%)
경북(평균 23.6%): 형성기(6.0%) 확장기(6.9%) 수축기(16.3%) 소멸기(39.1%)
강원(평균 24.1%): 형성기(7.9%) 확장기(8.2%) 수축기(18.5%) 소멸기(38.7%)

- 1인 가구 혼인상태는 형성기에 주말부부 등의 사유로 「유배우」 비중*이, 소멸기에는 「사별」 비중**이 가장 높게 나타남

* 형성기(유배우): 대구(86.6%) 경북(87.1%) 강원(89.3%)
** 소멸기(사별): 대구(73.5%) 경북(84.2%) 강원(77.5%)

- 주택유형은 형성기, 확장기, 수축기에 아파트 비중*이 가장 높고, 소멸기는 단독주택**이 높게 나타남

* 확장기(아파트/단독): 대구(70.9%/22.3%) 경북(65.7%/24.3%) 강원(67.6%/24.1%)
** 소멸기(아파트/단독): 대구(43.7%/44.4%) 경북(19.3%/71.9%) 강원(26.7%/64.7%)

II. 개인생애주기

1. 연령 및 생애주기 사건에 따른 주기구분

성장기(0~19세)	⇒	성숙기(20~49세)	⇒	노쇠기(50~84세)	⇒	해체기(85세이상)
영유아기(0~5세) 아동기(6~12세) 청소년기(13~19세)		청년기(20~29세) 장년기(30~49세)		중년기(50~64세) 노년기(65~84세)		초고령기(85세이상)

2. 주요 특징

- 대구·경북·강원의 **50% 이상은 장년기 및 중년기 인구**이며, 경북·강원의 노년기 인구는 각각 16.5%, 15.7%로 대구(12.0%)에 비해 약 4.0%p 높음
 - * 대구: 청년기(12.1%) 장년기(31.9%) 중년기(23.1%) 노년기(12.0%)
 - 경북: 청년기(10.0%) 장년기(29.5%) 중년기(24.1%) 노년기(16.5%)
 - 강원: 청년기(10.7%) 장년기(28.7%) 중년기(24.5%) 노년기(15.7%)
- **출생지 거주비율**은 대구(45.6%), 경북(55.8%), 강원(50.4%)이나, 청년기까지 거주비율은 대구가 경북·강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
 - * 대구: 영유아기(87.4%) 청년기(62.9%) 장년기(41.5%) 중년기(26.0%)
 - 경북: 영유아기(85.0%) 청년기(53.3%) 장년기(44.7%) 중년기(48.6%)
 - 강원: 영유아기(80.1%) 청년기(48.2%) 장년기(44.8%) 중년기(44.0%)
- **교육수준**은 대구 대졸(38.7%), 경북 고졸(31.3%), 강원 대졸(30.8%)로 가장 높으며, 이는 청·장년기의 대졸 비중이 높음에 주로 기인
 - * 대구(청년/장년/중년): 고졸(11.8%/32.1%/40.3%) 대졸(84.6%/58.6%/23.1%)
 - 경북(청년/장년/중년): 고졸(19.6%/41.5%/40.8%) 대졸(77.0%/50.9%/17.1%)
 - 강원(청년/장년/중년): 고졸(16.2%/39.4%/39.0%) 대졸(80.0%/50.1%/18.1%)
- **임금근로자 비중**은 대구(72.5%), 경북(59.4%), 강원(64.5%)로 나타났고, 대구·경북·강원 「장년기」 임금근로자 비중은 73.0%~75.8%로 유사하며 「중년기」는 대구(61.6%) 경북(48.1%) 강원(52.8%)로 다소 차이가 있음
- 대구·경북·강원의 **총 출생아수**는 2명 비중이 가장 높고, 장년기·중년기는 2명, 노년기는 대구 3명 경북·강원 5명이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
 - * 대구(장년/중년/노년): 2명(57.6%/63.9%/21.8%) 5명이상(0.1%/0.5%/15.5%)
 - 경북(장년/중년/노년): 2명(56.6%/57.3%/14.0%) 5명이상(0.2%/1.4%/28.8%)
 - 강원(장년/중년/노년): 2명(55.1%/55.9%/15.8%) 5명이상(0.2%/1.6%/27.5%)

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

I. 가족 생애주기별 특성 분석

- (가족 생애주기) 가족의 생애주기는 결혼기간을 기준으로 형성기, 확장기, 수축기, 소멸기의 네 단계로 구분될 수 있음

< 가족 생애주기 >

	형성기	확장기	수축기	소멸기
생애주기 사건	결혼	첫 자녀 출산 막내 자녀 출산	첫 자녀 결혼 막내 자녀 결혼	노화 노부부의 사망
시기	결혼 전기 결혼 적응기	자녀 아동기 자녀 청소년기	자녀 독립기 노년기	노년기
결혼기간*	0~4년	5~19년	20~34년	35년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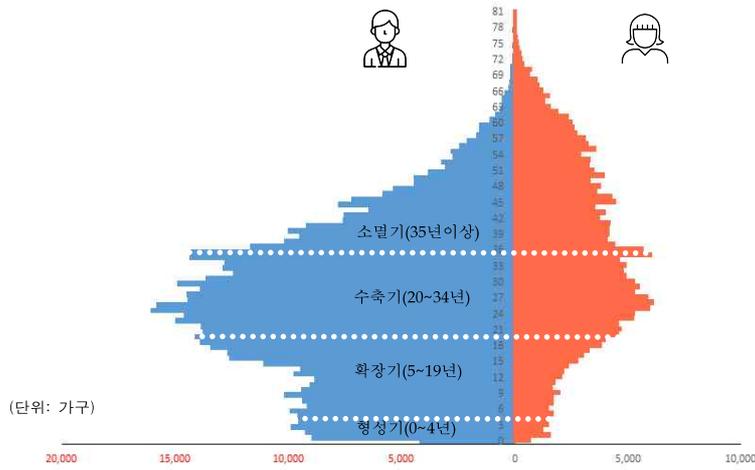
* 결혼기간은 기혼자의 만 나이-초혼연령(만 나이)으로 산출함
출처: 에디드 듀발(Durvall, 1987)의 가족의 생애과정을 재구성함

- (형성기) 결혼을 통해 가족이 형성되는 시기를 의미하며, 이 시기는 결혼기간 0년에서 4년까지로 볼 수 있음
- (확장기) 출산·입양을 통해 가족이 확대되는 시기로 막내를 출산하는 때까지를 의미하며, 이 시기는 결혼기간 5년에서 19년까지로 볼 수 있음
- (수축기) 자녀의 출가 및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가족규모가 축소되는 시기를 의미하며, 이 시기는 결혼기간 20년에서 34년까지로 볼 수 있음
- (소멸기) 결혼으로 생성된 가족이 노부부의 사망으로 인한 가족의 해체를 의미하며, 이 시기는 결혼기간 35년 이상으로 볼 수 있음

> 가족(가구) 생애주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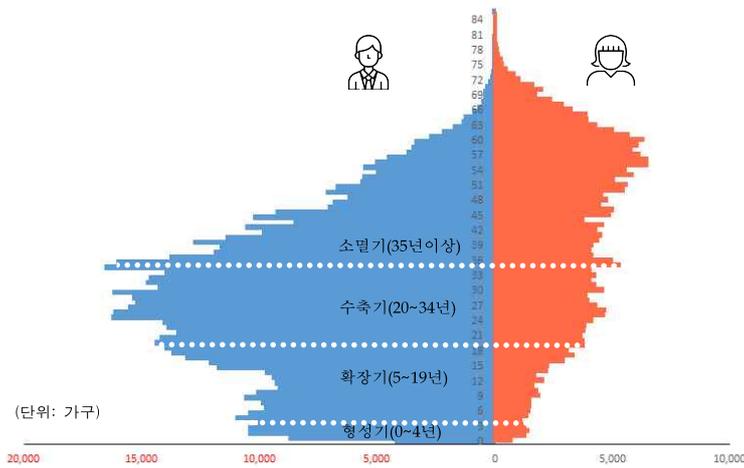
[그림 1] 대구지역 가족 생애주기 피라미드



➤ 가족 생애주기별 가구규모

- 형성기(0~4년) 5.9%
- 확장기(5~19년) 23.9%
- 수축기(20~34년) 35.9%
- 소멸기(35년이상) 34.3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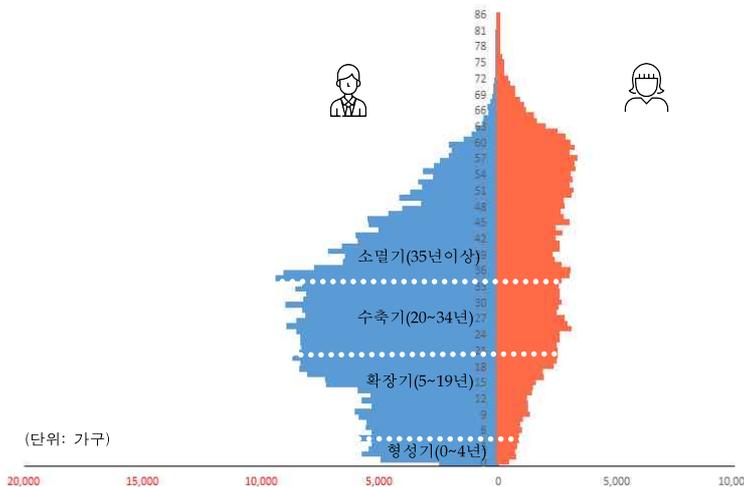
[그림 2] 경북지역 가족 생애주기 피라미드



➤ 가족 생애주기별 가구규모

- 형성기(0~4년) 5.3%
- 확장기(5~19년) 21.0%
- 수축기(20~34년) 30.4%
- 소멸기(35년이상) 43.2%

[그림 3] 강원지역 가족 생애주기 피라미드



➤ 가족 생애주기별 가구규모

- 형성기(0~4년) 5.1%
- 확장기(5~19년) 22.1%
- 수축기(20~34년) 31.2%
- 소멸기(35년이상) 41.5%

1. 가구원수 규모

확장기(결혼기간 5~19년)에 평균 가구원수가 가장 많고, 이후 자녀독립에 따라 감소

- 대구의 가구원수 규모는 4인 이상 가구(29.6%)가 가장 많고, 경북·강원은 2인 가구가 각각 32.0%, 31.4%로 가장 많이 나타남
 - 전국의 가구원수 규모는 4인 이상(29.4%), 2인(28.0%), 3인(24.5%), 1인(18.1%) 순임
- 가족 생애주기별 가구원수는 대구·경북·강원 모두 확장기(5~19년)에 평균 가구원수(3.5명)가 가장 많고, 결혼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가구원수는 감소하여 소멸기(35년 이상)에 가장 적게 나타남
 - 수축기(20~34년)의 가구원수 규모를 보면, 대구는 4인 이상 가구(33.3%), 경북·강원은 2인 가구가 각각 31.5%, 30.9%로 가장 많음

[그림 4] 가구원수 규모



[표 1] 가족 생애주기별 가구원수 규모

생애 주기		계	1인	2인	3인	4인 이상	평균 가구원수
대구		100.0	17.8	27.4	25.2	29.6	2.8
	형성기(0~4년)	100.0	5.2	38.3	42.6	13.9	2.7
	확장기(5~19년)	100.0	6.0	9.6	26.3	58.1	3.5
	수축기(20~34년)	100.0	13.0	23.3	30.5	33.3	2.9
	소멸기(35년 이상)	100.0	33.2	42.4	16.0	8.5	2.1
경북		100.0	23.6	32.0	21.8	22.6	2.5
	형성기(0~4년)	100.0	6.0	34.3	44.2	15.5	2.7
	확장기(5~19년)	100.0	6.9	9.9	24.3	58.9	3.5
	수축기(20~34년)	100.0	16.3	31.5	29.7	22.4	2.7
	소멸기(35년 이상)	100.0	39.1	42.9	12.1	5.9	1.9
강원		100.0	24.1	31.4	21.5	22.9	2.5
	형성기(0~4년)	100.0	7.9	35.0	41.9	15.2	2.7
	확장기(5~19년)	100.0	8.2	11.2	23.9	56.7	3.5
	수축기(20~34년)	100.0	18.5	30.9	28.1	22.4	2.6
	소멸기(35년 이상)	100.0	38.7	42.1	12.8	6.4	1.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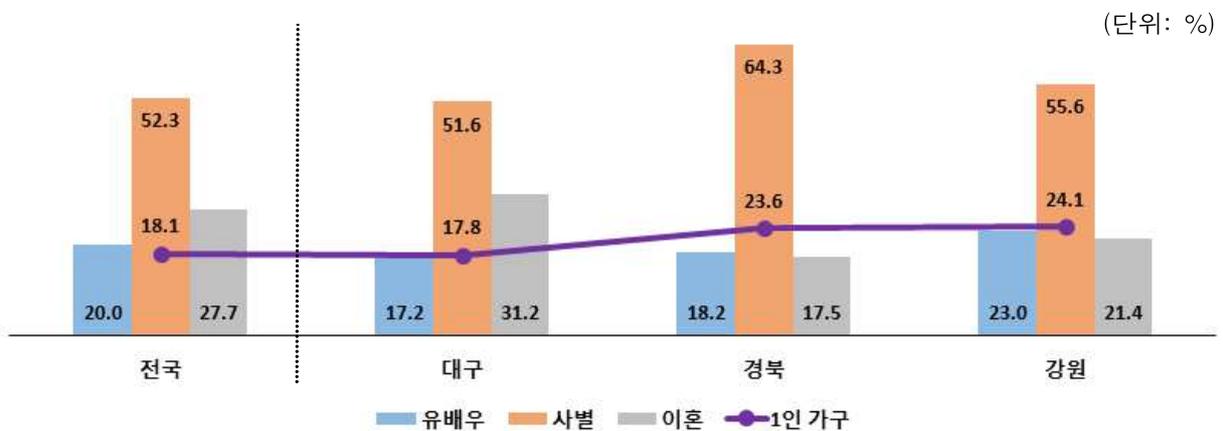
(단위: %, 명)

2. 1인 가구

소멸기(결혼기간 35년 이상)에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고, 주된 사유는 사별

- 1인 가구* 비중은 강원(24.1%), 경북(23.6%), 대구(17.8%) 순이고, 1인 가구의 혼인상태는 사별이 가장 높게 나타남
 - 1인 가구의 혼인상태는 대구는 사별(51.6%), 이혼(31.2%), 유배우(17.2%) 순이고, 경북·강원은 사별(각 64.3%, 55.6%), 유배우(각 18.2%, 23.0%), 이혼(각 17.5%, 21.4%) 순임
- 1인 가구의 가족 생애주기별 혼인상태 비중을 보면,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소멸기(35년 이상)는 대구·경북·강원 모두 사별이 가장 높게 나타남
 - 확장기(5~19년)의 혼인상태 비중은 대구는 이혼(56.5%), 경북·강원은 유배우가 각각 56.1%, 60.7%로 가장 높음

[그림 5] 1인 가구의 비율 및 혼인상태 비중



[표 2] 1인 가구의 가족 생애주기별 혼인상태 비중

생애 주기	1인 가구 비중	혼인상태			
		계	유배우	사별	이혼
대구	17.8	100.0	17.2	51.6	31.2
형성기(0~4년)	5.2	100.0	86.6	0.2	13.2
확장기(5~19년)	6.0	100.0	40.7	2.8	56.5
수축기(20~34년)	13.0	100.0	25.7	16.7	57.6
소멸기(35년 이상)	33.2	100.0	8.9	73.5	17.7
경북	23.6	100.0	18.2	64.3	17.5
형성기(0~4년)	6.0	100.0	87.1	0.3	12.7
확장기(5~19년)	6.9	100.0	56.1	3.2	40.7
수축기(20~34년)	16.3	100.0	38.9	18.7	42.4
소멸기(35년 이상)	39.1	100.0	7.6	84.2	8.2
강원	24.1	100.0	23.0	55.6	21.4
형성기(0~4년)	7.9	100.0	89.3	0.9	9.8
확장기(5~19년)	8.2	100.0	60.7	3.5	35.8
수축기(20~34년)	18.5	100.0	41.9	14.8	43.3
소멸기(35년 이상)	38.7	100.0	10.3	77.5	12.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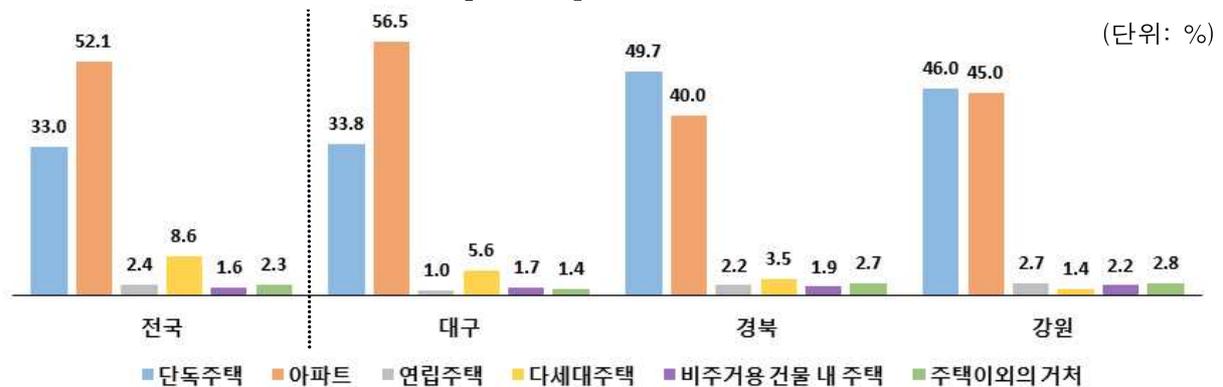
* 가구주의 혼인상태가 미혼인 경우를 제외하고, 유배우·사별·이혼 중 1인 가구의 비중을 집계하였음

3. 주택 유형

형성기부터 수축기까지(결혼기간 0~34년)는 아파트 비중이, 소멸기(결혼기간 35년 이상)는 단독주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

- 대구의 주택유형 분포는 아파트 비중(56.5%)이 가장 높고, 경북·강원은 단독주택 비중이 각각 49.7%, 46.0%로 가장 높게 나타남
 - 전국의 주택유형 분포는 아파트(52.1%), 단독주택(33.0%) 순으로 나타남
 - 단독주택과 아파트 비중 차이가 경북은 약 9.7%p(단독주택 49.7%, 아파트 40.0%)이고, 강원은 약 1.0%p(단독주택 46.0%, 아파트 45.0%)로 나타남
- 가족 생애주기별 주택유형 분포는 대구·경북·강원 모두 형성기부터 수축기까지(0~34년)는 아파트 비중이, 소멸기(35년 이상)는 단독주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

[그림 6] 주택 유형



[표 3] 가족 생애주기별 주택 유형

생애주기	계	단독주택	아파트	연립주택	다세대주택	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*	주택이외의 거처
대구	100.0	33.8	56.5	1.0	5.6	1.7	1.4
형성기(0~4년)	100.0	24.8	68.2	0.6	3.9	0.6	1.8
확장기(5~19년)	100.0	22.3	70.9	0.6	4.2	1.0	0.9
수축기(20~34년)	100.0	32.7	57.2	1.0	6.0	1.7	1.4
소멸기(35년 이상)	100.0	44.4	43.7	1.2	6.6	2.3	1.8
경북	100.0	49.7	40.0	2.2	3.5	1.9	2.7
형성기(0~4년)	100.0	24.1	66.8	2.4	4.0	0.8	2.0
확장기(5~19년)	100.0	24.3	65.7	2.3	4.6	1.3	1.8
수축기(20~34년)	100.0	40.1	47.0	2.7	4.3	2.5	3.5
소멸기(35년 이상)	100.0	71.9	19.3	1.8	2.3	2.0	2.6
강원	100.0	46.0	45.0	2.7	1.4	2.2	2.8
형성기(0~4년)	100.0	20.1	71.8	2.6	1.7	1.1	2.7
확장기(5~19년)	100.0	24.1	67.6	2.6	1.5	1.6	2.6
수축기(20~34년)	100.0	40.9	48.8	2.9	1.6	2.6	3.2
소멸기(35년 이상)	100.0	64.7	26.7	2.6	1.2	2.3	2.6

*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은 상가, 공장, 여관 등이며, 주택 이외의 거처는 오피스텔, 호텔,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,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, 판잣집, 비닐하우스 등임

II. 개인 생애주기별 특성 분석

- (개인 생애주기) 개인의 생애주기는 생애주기 사건을 기준으로 성장기, 성숙기, 노쇠기, 해체기의 네 단계로 구분될 수 있음

<개인 생애주기>

	성장기	성숙기	노쇠기	해체기
생애주기 사건	출생, 교육	노동시장 진입, 결혼 및 출산	은퇴, 빈둥지기	사망
시기	영·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	청년기 장년기	중년기 노년기	초고령기
연령	0~19세	20~49세	50~84세	85세 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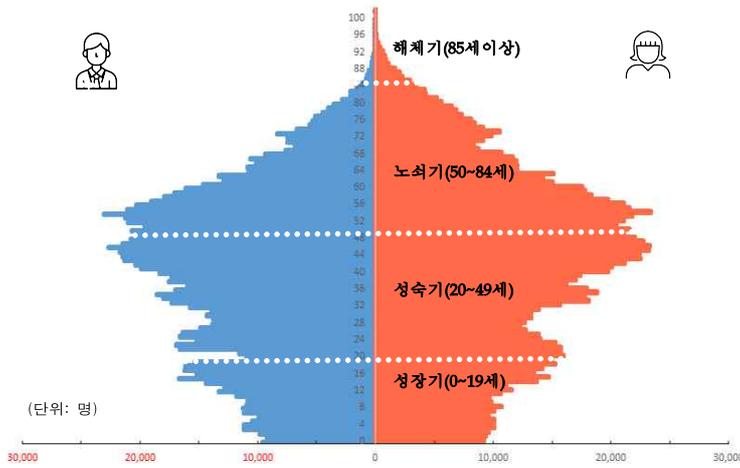
출처: 에릭슨의 8단계 생애주기 발달론을 재구성함

- (성장기) 출생 후 부모의 양육 및 정규교육을 받는 시기로, 영·유아기(0~5세), 아동기(6~12세), 청소년기(13~19세)가 해당됨
- (성숙기) 정규 교육 후 첫 일자리에 진입하고, 결혼 및 출산과 자녀 양육을 하는 시기로, 청년기(20~29세)와 장년기(30~49세)가 해당됨
- (노쇠기) 신체의 노화가 진행되고, 노동시장에서의 은퇴 및 자녀의 독립이 발생하는 시기로, 중년기(50~64세)와 노년기(65~84세)가 해당됨
- (해체기) 노화 및 질병으로 개인이 사망하고, 생애주기가 종료되는 시기로, 초고령기(85세 이상)가 해당됨

> 개인 생애주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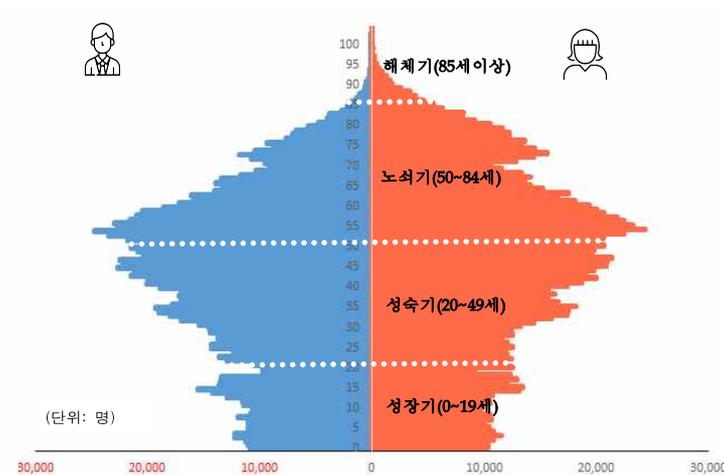
[그림 7] 대구지역 개인 생애주기 피라미드



➤ 개인 생애주기별 인구규모

- 성장기(0~19세) 20.0%
- 성숙기(20~49세) 44.0%
- 노쇠기(50~84세) 35.1%
- 해체기(85세이상) 0.8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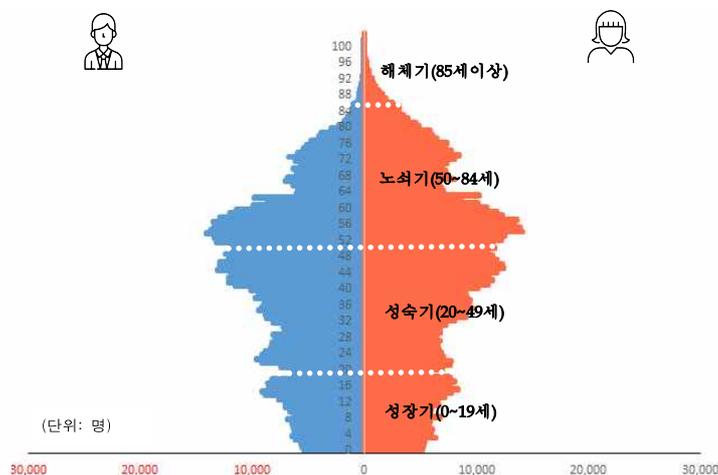
[그림 8] 경북지역 개인 생애주기 피라미드



➤ 개인 생애주기별 인구규모

- 성장기(0~19세) 18.3%
- 성숙기(20~49세) 39.5%
- 노쇠기(50~84세) 40.7%
- 해체기(85세이상) 1.5%

[그림 9] 강원지역 개인 생애주기 피라미드



➤ 개인 생애주기별 인구규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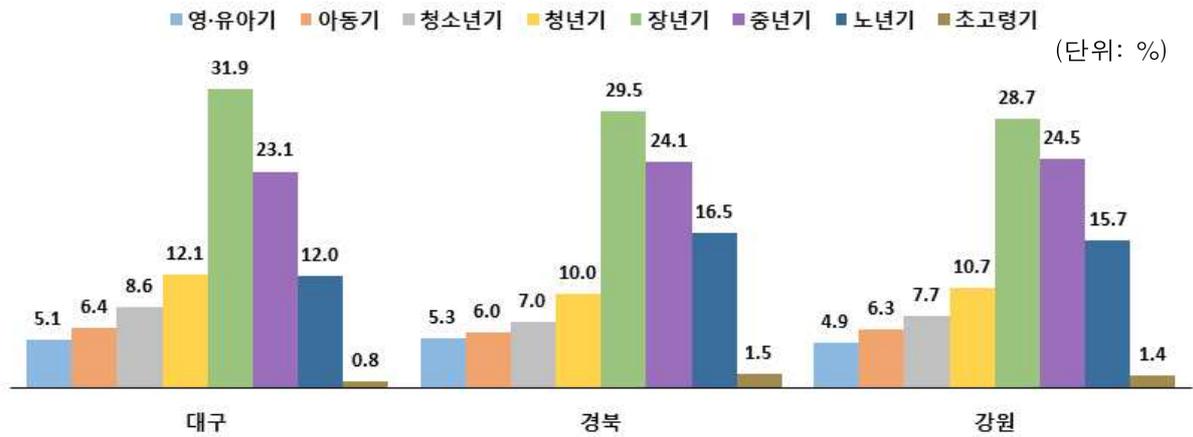
- 성장기(0~19세) 18.9%
- 성숙기(20~49세) 39.4%
- 노쇠기(50~84세) 40.2%
- 해체기(85세이상) 1.4%

1. 인구분포

대구·경북·강원 모두 장년기(30~49세) 인구가 가장 많아

- 대구의 인구분포는 장년기(31.9%), 중년기(23.1%), 청년기(12.1%) 순이고, 경북·강원은 장년기(각 29.5%, 28.7%), 중년기(각 24.1%, 24.5%), 노년기(각 16.5%, 15.7%) 순으로 나타남
- 성별 인구수는 대구·경북·강원 모두 남자보다 여자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
 - (대구) 청년기까지(0~29세)는 남자, 장년기(30~49세) 이후는 여자인구가 많음
 - (경북) 장년기까지(0~49세)는 남자, 중년기(50~64세) 이후는 여자인구가 많음
 - (강원) 중년기까지(0~64세)는 남자, 노년기(65~84세) 이후는 여자인구가 많음
 - 성별 인구수 차이는 대구(약 4만 6천명), 경북(약 3만 2천명), 강원(약 8천명) 순으로 대구가 성별 인구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남

[그림 10] 생애주기별 인구분포



[표 4] 생애주기별 인구분포

(단위: 천명, %)

생애주기	대구				경북				강원			
	전체	%			전체	%			전체	%		
		%	남자	여자		%	남자	여자		%	남자	여자
영·유아기(0~5세)	120	5.1	62	59	133	5.3	69	65	70	4.9	36	34
아동기(6~12세)	152	6.4	80	72	151	6.0	79	72	91	6.3	47	44
청소년기(13~19세)	205	8.6	107	98	177	7.0	93	84	111	7.7	58	53
청년기(20~29세)	289	12.1	147	142	252	10.0	130	122	154	10.7	84	70
장년기(30~49세)	760	31.9	375	385	742	29.5	383	359	411	28.7	209	202
중년기(50~64세)	551	23.1	269	281	607	24.1	303	304	351	24.5	177	175
노년기(65~84세)	286	12.0	123	163	416	16.5	176	241	226	15.7	97	129
초고령기(85세 이상)	18	0.8	5	14	38	1.5	10	28	20	1.4	6	15
합계	2,381	100.0	1,168	1,214	2,516	100.0	1,242	1,274	1,434	100.0	713	721

2. 출생지 거주비율

경북·강원은 절반이상 인구가 출생지에 거주하고,
특히, 영·유아기(0~5세)의 출생지 거주비율은 80% 이상으로 가장 높아

- 출생지 거주비율은 경북(55.8%), 강원(50.4%), 대구(45.6%) 순으로 전국의 출생지 거주비율(41.0%)보다 높게 나타남
 - 성별로 보면, 남자의 출생지 거주비율이 여자의 출생지 거주비율보다 높음
- 생애주기별 출생지 거주비율은 대구·경북·강원 모두 영·유아기(0~5세)가 가장 높고,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(대구) 영·유아기(0~5세, 87.4%) 정점 이후, 연령증가에 따라 출생지 거주비율이 감소하여 노년기(65~84세, 21.8%)에 가장 낮음
 - (경북) 영·유아기(0~5세, 85.0%) 정점 이후, 출생지 거주비율이 감소하여 장년기(30~49세, 44.7%)에 가장 낮고, 이후 다시 증가함
 - (강원) 영·유아기(0~5세, 80.1%) 정점 이후, 청년기(20~29세, 48.2%)에 감소한 후 초고령기(85세 이상)까지 비슷한 비중을 유지함

[그림 11] 출생지 거주비율



[표 5] 생애주기별 출생지 거주비율*

(단위: 천명, %)

생애주기	대구				경북				강원			
	출생지거주인구		남자	여자	출생지거주인구		남자	여자	출생지거주인구		남자	여자
	천명	%			천명	%			천명	%		
영·유아기(0~5세)	105	87.4	87.4	87.4	113	85.0	84.7	85.4	56	80.1	79.7	80.7
아동기(6~12세)	122	80.4	80.8	80.0	116	77.1	77.2	76.9	65	71.6	72.0	71.1
청소년기(13~19세)	153	74.5	74.9	74.0	130	73.5	74.1	72.7	75	67.9	68.2	67.5
청년기(20~29세)	182	62.9	64.5	61.2	134	53.3	55.8	50.6	74	48.2	47.5	49.1
장년기(30~49세)	315	41.5	42.9	40.1	332	44.7	49.6	39.5	184	44.8	49.5	39.9
중년기(50~64세)	143	26.0	27.6	24.5	295	48.6	54.9	42.3	155	44.0	50.3	37.6
노년기(65~84세)	62	21.8	22.8	21.1	259	62.1	67.1	58.5	103	45.6	49.4	42.8
초고령기(85세 이상)	4	23.6	24.4	23.3	26	68.6	77.2	65.7	10	48.5	46.5	49.2
합계	1,087	45.6	47.8	43.6	1,405	55.8	59.8	52.0	722	50.4	54.0	46.8

*출생지거주비율은 태어난 곳이 "현재 살고있는 집"과 "같은 시·군·구 내 다른집"인 인구의 비율을 집계하였음

3. 학령인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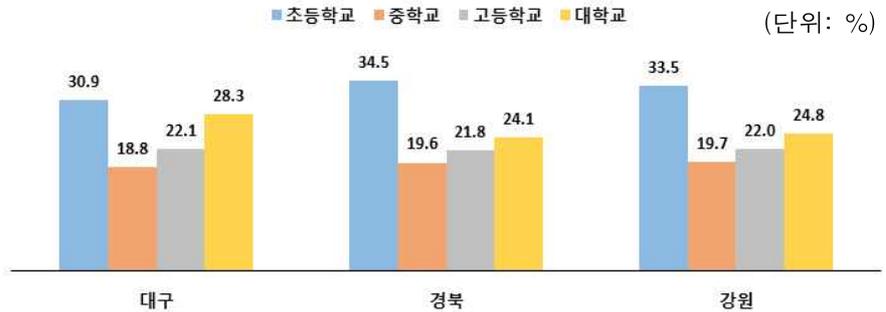
대구의 학령인구(만6~21세) 비중은 17.3%로 전국(16.6%)보다 약 0.7%p 높아

- 전체인구 대비 학령인구 비중은 대구(17.3%), 강원(16.0%), 경북(14.8%) 순으로, 대구는 전국의 학령인구 비중(16.6%)보다 약 0.7%p 높게 나타남
- 학교급별 학령인구 비중은 대구·경북·강원 모두 초등학교(만6~11세), 대학교(만18~21세), 고등학교(만15~17세), 중학교(만12~14세) 순으로 나타남
- 성별 학령인구수는 대구·경북·강원 모두 여자보다 남자인구가 많음
 - (대구·경북)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(만6~17세)는 남자, 대학교(만18~21세)는 여자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
 - (강원) 모든 학교급에서 남자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

[그림 12] 학령인구 비중



[그림 13] 학교급별 학령인구



[표 6] 학교급별 학령인구*

생애주기	전체 학령인구		남자 학령인구		여자 학령인구	
	명	구성비 (%)	명	구성비 (%)	명	구성비 (%)
대구	411,214	100.0	209,338	100.0	201,876	100.0
초등학교(만6~11세)	126,986	30.9	66,277	31.7	60,709	30.1
중학교(만12~14세)	77,174	18.8	40,662	19.4	36,512	18.1
고등학교(만15~17세)	90,731	22.1	48,220	23.0	42,511	21.1
대학교(만18~21세)	116,323	28.3	54,179	25.9	62,144	30.8
경북	372,687	100.0	192,319	100.0	180,368	100.0
초등학교(만6~11세)	128,610	34.5	67,110	34.9	61,500	34.1
중학교(만12~14세)	73,171	19.6	38,766	20.2	34,405	19.1
고등학교(만15~17세)	81,257	21.8	42,781	22.2	38,476	21.3
대학교(만18~21세)	89,649	24.1	43,662	22.7	45,987	25.5
강원	230,051	100.0	118,882	100.0	111,169	100.0
초등학교(만6~11세)	77,043	33.5	39,881	33.5	37,162	33.4
중학교(만12~14세)	45,287	19.7	23,736	20.0	21,551	19.4
고등학교(만15~17세)	50,628	22.0	26,475	22.3	24,153	21.7
대학교(만18~21세)	57,093	24.8	28,790	24.2	28,303	25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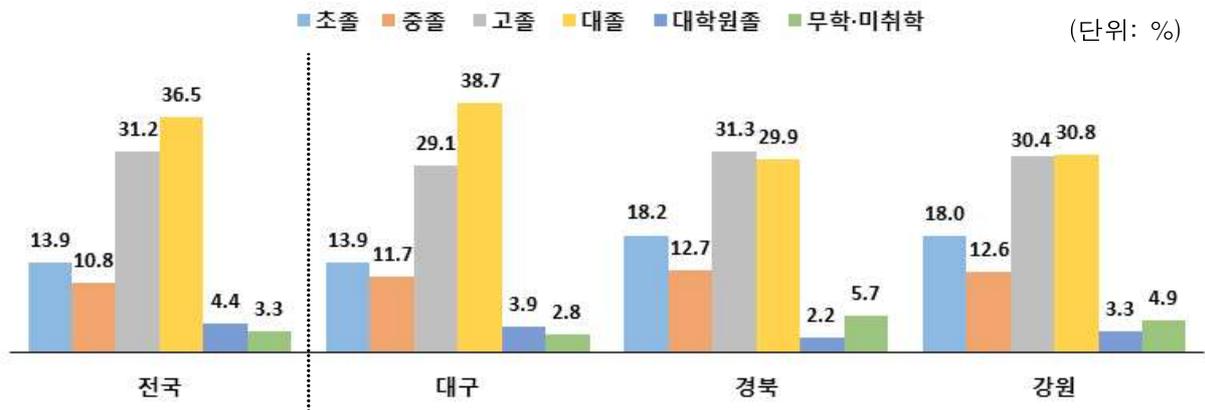
* 학령인구는 만나이가 6~21세인 인구를 집계하였음

4. 교육수준

청·장년기(20~49세)는 대졸 비중이 가장 높아

- 대구·강원의 교육수준 분포는 대졸 비중이 각각 38.7%, 30.8%로 가장 높고, 경북은 고졸 비중(31.3%)이 가장 높게 나타남
 - 전국의 교육수준 분포는 대졸(36.5%), 고졸(31.2%), 초졸(13.9%), 중졸(10.8%) 순임
- 생애주기별 교육수준 분포는 대구·경북·강원 모두 연령이 감소함에 따라 대졸과 대학원졸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전국의 대졸 비중(36.5%)보다 높은 대구의 경우 청년기(20~29세)의 대졸 비중이 84.6%로 가장 높음

[그림 14] 교육수준



[표 7] 생애주기별 교육수준*

생애주기		계	초졸	중졸	고졸	대졸	대학원졸	무학·미취학
대구	청년기(20~29세)	100.0	-	0.6	11.8	84.6	3.0	0.0
	장년기(30~49세)	100.0	0.4	2.2	32.1	58.6	6.7	0.1
	중년기(50~64세)	100.0	12.4	19.6	40.3	23.1	4.2	0.5
	노년기(65~84세)	100.0	36.7	19.6	20.4	9.4	1.6	12.3
	초고령기(85세 이상)	100.0	33.5	9.0	6.8	5.3	0.8	44.6
	계	100.0	13.9	11.7	29.1	38.7	3.9	2.8
경북	청년기(20~29세)	100.0	-	1.4	19.6	77.0	1.9	0.1
	장년기(30~49세)	100.0	0.6	3.0	41.5	50.9	3.9	0.1
	중년기(50~64세)	100.0	16.7	21.9	40.8	17.1	2.6	0.9
	노년기(65~84세)	100.0	44.9	15.8	13.1	4.3	0.6	21.3
	초고령기(85세 이상)	100.0	29.6	4.2	3.0	1.1	0.1	62.0
	계	100.0	18.2	12.7	31.3	29.9	2.2	5.7
강원	청년기(20~29세)	100.0	-	1.2	16.2	80.0	2.6	0.1
	장년기(30~49세)	100.0	0.9	3.4	39.4	50.1	6.0	0.1
	중년기(50~64세)	100.0	18.2	19.8	39.0	18.1	3.9	1.1
	노년기(65~84세)	100.0	41.2	16.4	16.4	6.4	1.1	18.5
	초고령기(85세 이상)	100.0	33.0	6.1	4.8	2.3	0.3	53.5
	계	100.0	18.0	12.6	30.4	30.8	3.3	4.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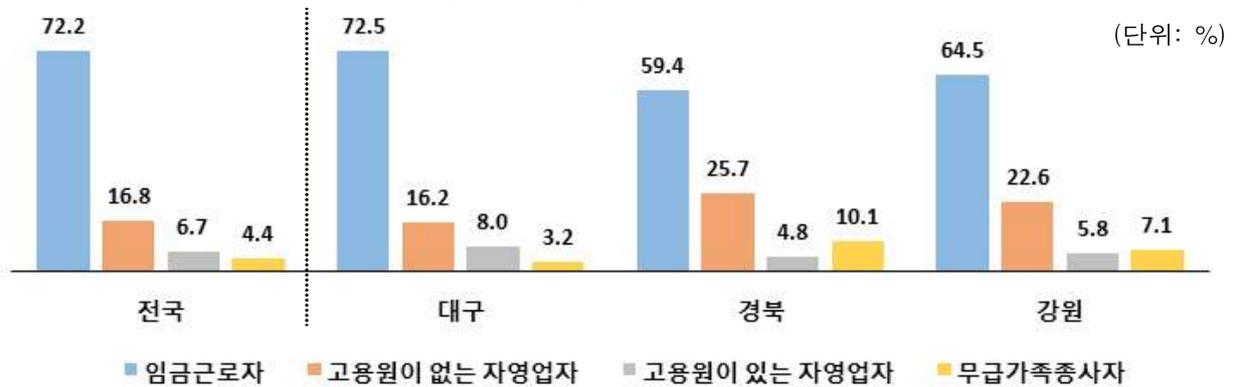
* 각 학교급의 졸업, 재학, 휴학, 수료, 중퇴를 포함하여 집계하였음

5. 종사상지위

청년기(20~29세)의 90% 이상은 임금근로자가 차지

- 종사상지위 분포는 대구·경북·강원 모두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
 -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대구(72.5%), 강원(64.5%), 경북(59.4%) 순이고, 대구는 전국(72.2%)보다 약 0.3%p 높음
- 생애주기별 종사상지위 분포는 대구·경북·강원 모두 청년기(20~29세)는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으나, 연령증가에 따라 비임금근로자(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,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, 무급가족종사자)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대구는 노년기까지(20~84세) 임금근로자가 가장 높고, 경북·강원은 중년기까지(20~64세) 임금근로자가 가장 높으나, 노년기(65~84세)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가장 높음

[그림 15] 종사상지위



[표 8] 생애주기별 종사상지위*

생애주기	계	임금근로자	비임금근로자		
			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	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	무급가족종사자
대구	100.0	72.5	16.2	8.0	3.2
청년기(20~29세)	100.0	93.1	3.6	1.4	1.9
장년기(30~49세)	100.0	75.8	13.6	8.1	2.4
중년기(50~64세)	100.0	61.6	23.4	10.5	4.6
노년기(65~84세)	100.0	49.7	35.2	8.4	6.6
경북	100.0	59.4	25.7	4.8	10.1
청년기(20~29세)	100.0	90.2	3.7	1.3	4.9
장년기(30~49세)	100.0	73.0	15.9	5.4	5.6
중년기(50~64세)	100.0	48.1	32.5	6.0	13.4
노년기(65~84세)	100.0	16.1	60.3	2.4	21.2
강원	100.0	64.5	22.6	5.8	7.1
청년기(20~29세)	100.0	90.8	3.8	1.5	4.0
장년기(30~49세)	100.0	74.4	15.3	6.2	4.1
중년기(50~64세)	100.0	52.8	30.3	7.4	9.5
노년기(65~84세)	100.0	29.1	51.4	3.5	16.0

*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상태가 '주로 일하였음', '틈틈이 일하였음', '일시휴직'인 인구 중 종사상지위를 집계하였음

6. 직업분포

중년기(50~64세)의 직업분포는 기능직 비중이 가장 높아

- 대구의 직업분포는 기능직(25.1%), 전문·관리직(22.2%), 사무직(16.3%) 순이고, 경북은 기능직(24.4%), 농림·어업직(17.1%), 전문·관리직(14.5%) 순, 강원은 전문·관리직(16.9%), 기능직(16.6%), 단순노무직·서비스직(14.4%) 순으로 나타남
 - 전국의 직업분포는 전문·관리직(22.3%), 사무직(17.3%), 서비스직(10.6%), 판매직(11.8%), 농림어업직(5.2%), 기능직(21.4%), 단순노무직(11.0%), 군인(0.4%) 순으로 나타남
- 생애주기별 직업분포를 보면, 대구·강원의 경우 청년기는 전문·관리직의 비중이 높으며, 이후 연령증가에 따라 농림·어업직 및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증가함
 - 경북은 중년기까지(20~64세) 기능직의 비중이 가장 높고, 이후 노년기(65~84세)에는 농림·어업직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

[그림 16] 직업분포



[표 9] 생애주기별 직업분포*

(단위: %)

생애주기	계	전문관리직 ¹⁾	사무직	서비스직	판매직	농림어업직	기능직 ²⁾	단순노무직	군인
대구	100.0	22.2	16.3	10.8	13.3	1.1	25.1	10.7	0.4
청년기(20~29세)	100.0	32.4	21.3	12.3	12.3	0.1	14.6	6.2	0.8
장년기(30~49세)	100.0	25.9	19.7	8.9	14.2	0.4	23.2	7.2	0.5
중년기(50~64세)	100.0	14.3	10.4	13.0	12.5	1.7	32.9	15.0	0.1
노년기(65~84세)	100.0	7.6	4.5	9.2	11.4	9.0	24.3	34.0	-
경북	100.0	14.5	12.2	9.8	8.1	17.1	24.4	13.6	0.3
청년기(20~29세)	100.0	25.4	19.6	9.4	7.9	3.0	27.1	6.6	0.9
장년기(30~49세)	100.0	19.7	17.0	9.7	9.7	5.5	29.2	8.8	0.4
중년기(50~64세)	100.0	9.2	7.8	12.4	7.5	21.6	24.1	17.4	0.1
노년기(65~84세)	100.0	1.7	1.1	3.8	4.3	57.2	6.1	25.7	-
강원	100.0	16.9	13.8	14.4	9.9	11.0	16.6	14.4	3.0
청년기(20~29세)	100.0	25.2	21.1	14.4	9.1	1.9	10.1	6.6	11.4
장년기(30~49세)	100.0	22.1	18.9	13.6	11.2	3.4	18.0	9.3	3.5
중년기(50~64세)	100.0	11.5	8.4	16.8	9.4	14.9	19.8	18.7	0.5
노년기(65~84세)	100.0	2.7	1.5	8.1	6.5	42.9	7.3	31.0	-

*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상태가 '주로 일하였음', '틈틈이 일하였음', '일시휴직'인 인구 중 직업을 집계하였음

1) 전문·관리직은 '관리자', '전문가 및 관련종사자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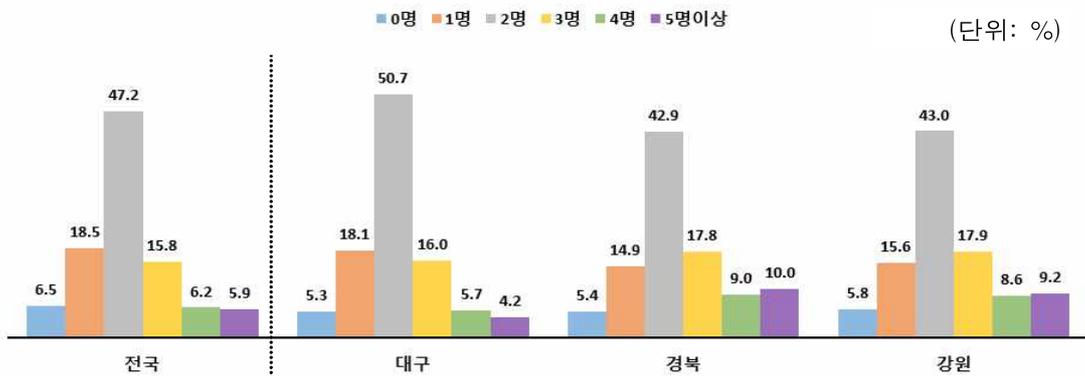
2) 기능직은 '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', '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'로 집계

7. 출생아수

총 출생아수, 초고령기(85세 이상) 5명 이상, 중·장년기(30~64세) 2명이 가장 높아

- 대구의 출생아수 분포는 2명(50.7%), 1명(18.1%), 3명(16.0%) 순이고, 경북·강원은 2명(각 42.9%, 43.0%), 3명(각 17.8%, 17.9%), 1명(각 14.9%, 15.6%) 순으로 나타남
 - 전국의 출생아수 분포는 2명(47.2%), 1명(18.5%), 3명(15.8%) 순임
- 생애주기별 출생아수 분포는 대구·경북·강원 모두 초고령기(85세 이상)에는 5명 이상 비중이 가장 높으나, 연령감소에 따라 출생아수가 감소하여 중·장년기(30~64세)는 2명인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
 - 노년기(65~84세)의 출생아수는 대구는 3명(31.6%), 경북·강원은 5명 이상이 각각 28.8%, 27.5%로 가장 높음

[그림 17] 출생아수



[표 11] 생애주기별 출생아수*

생애주기	계	0명	1명	2명	3명	4명	5명 이상
대구	100.0	5.3	18.1	50.7	16.0	5.7	4.2
장년기(30~49세)	100.0	7.4	25.4	57.6	9.0	0.6	0.1
중년기(50~64세)	100.0	2.5	14.7	63.9	16.2	2.2	0.5
노년기(65~84세)	100.0	2.2	7.5	21.8	31.6	21.5	15.5
초고령기(85세 이상)	100.0	3.2	11.0	8.8	11.2	18.2	47.5
경북	100.0	5.4	14.9	42.9	17.8	9.0	10.0
장년기(30~49세)	100.0	8.0	23.1	56.6	11.2	1.0	0.2
중년기(50~64세)	100.0	3.2	12.7	57.3	20.6	4.8	1.4
노년기(65~84세)	100.0	2.2	5.2	14.0	25.2	24.6	28.8
초고령기(85세 이상)	100.0	2.6	7.2	6.3	9.2	16.0	58.7
강원	100.0	5.8	15.6	43.0	17.9	8.6	9.2
장년기(30~49세)	100.0	8.3	22.8	55.1	12.4	1.2	0.2
중년기(50~64세)	100.0	3.6	14.1	55.9	19.6	5.2	1.6
노년기(65~84세)	100.0	2.3	5.9	15.8	25.6	22.9	27.5
초고령기(85세 이상)	100.0	2.7	7.8	7.4	11.9	17.6	52.6

* 15세 이상 여성 인구에서 혼인상태가 '유배우', '사별', '이혼'인 인구 중 출생아수(직접 출산한 경우)를 집계하였음